

# ‘첫 역대 연봉’ KIA 문경찬 “1년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난해 54경기 55이닝 소화...24세이브 평균자책점 1.31

“새로운 기분 갖고 초심 돌아가려 해...일단 목표 작년 만큼”

마무리 투수로 성장한 문경찬 (28·KIA)이 고배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다.

문경찬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의 뒷문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단속했다. 54경기에 나와서 55이닝을 소화했고, 24세이브(1승 2패)를 거뒀다. 평균자책점(ERA 1.31)과 이닝당 출루허용율(WHIP 1.00)은 20세이브 이상을 거둔 선수 중 가장 낮았다. 시즌 후에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발탁돼 생애 첫 태극마크도 달았다.

마무리투수로서 자신만의 가치를 알린 문경찬은 5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상승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생애 첫 역대 연봉 대열에 들어섰다. 문경찬은 “갑격스러웠다. 부모님께서 처음

계약했을 때 고생했다고 하셨다. 자랑스럽다고도 해주셨는데, 1년으로 끝나지 않게 더 잘해야한다”라며 “앞으로 더 잘해 많이 받고 싶어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역대 연봉’ 소감을 전했다.

KIA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다. 맷 윌리엄스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스프링캠프지도 기존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바뀌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즌 출발을 앞둔 문경찬은 “새로운 기분을 갖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활약이 좋았던 만큼, 문경찬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

정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경찬은 “작년에 잘했던 것이 올해도 잘 돼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잘했으니 올해 더 잘해야하지 아닌 일단 작년 만큼해서 늘 어지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나섰던 만큼, 지난해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오는 7월 열리는 ‘2020 도쿄 올림픽’ 대표팀 승선도 유력하다.

문경찬은 “대표팀을 생각하기 보다는 시즌 초반부터 확실하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준 뒤 (대표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시즌 초반부터 ‘전력질주’를 예고한 가운데 일단 몸 상태는 좋



다. 비시즌 동안 개인 훈련을 받으면서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그는 “어렸을 때는 했던 것을 반복

해서 했던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 겨울에는 에이전트를 통해 PT 등을 받았는데, 그동안 했던 것과

다른 운동을 하다보니 배운 것도 많이 있다”라며 “올해 나도 기대가 된다”고 활약을 예고했다.

## “류현진 안정감 가져다줄 것”

미국 USA투데이, 토론토, AL 동부 4위 전망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가세한 류현진(33)이 2020년 팀 선발진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망했다. 류현진의 활약에 힘입어 토론토는 2019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USA투데이는 5일(한국시간) 2020시즌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의 성적을 예상했다.

매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뉴욕 양키스가 103승9패로 지구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탬파베이 레이스(92승70패)

가 뒤를 잇고 보스턴 레드삭스(84승78패), 토론토(75승87패), 볼티모어 오리올스(57승105패) 순으로 예상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과 같은 지구 4위에 그쳤지만 승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시즌에는 67승에 그쳤던 토론토지만 올해는 75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유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류현진을 영입하는 등 선발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USA투데이는 “류현진은 토론토 선발진에 안정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이 5할 승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1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로 예상된 양키스에 대해서는 “3억 24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정규시즌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103승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케릿 폴을 영입했지만 이는 정규시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트시즌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종코로나’로 뒤죽박죽 ACL

### 참가팀도 안 나가는 팀도 꼬였다

중국팀과 대결 4~5월로 연기...K리그 일정도 수정 불가피

아직 개막하지도 않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가 AFC를 괴롭히고 있다. 일정이 또 바뀌었다.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조치다.

AFC는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AFC 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ACL 일정을 변경했다. 변경의 골자는 2월로 예정된 중국 클럽들의 경기가 모두 4~5월로 연기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FC는 각국 2명씩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한국도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경기운영 담당 책임자가 함께 했

다. 회의 결과 K리그 팀들의 조별 예선 중국 팀 상대 홈 경기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5월로 연기된다. 나머지 경기들의 일정은 변동 없다.

이에 따라 2월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계획이던 FC서울과 베이징 귀안의 대결은 4월28일로 미뤄졌다. 2월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됐던 수원삼성FC와 광주FC의 대결은 4월29일 열린다. 2월18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진행될 울산현대와 상하이 선화의 경기는 5월19일로 날짜가 달라졌으며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의 2월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맞대결은 5월20일 펼쳐진다.

어차피 있는 경기들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 크게 대수롭지 않

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K리그 개막(2월29일) 전 ACL 2경기를 소화할 수 있었던 스케줄이 하나로 쏠렸다.

ACL에 참가하는 한 구단 관계자는 “원래 스케줄이라면 1차전(2월11일~12일)을 치르고 다음 2차전(2월18일~19일)까지 1주일가량의 여유가 있다. 이 정도의 경기 간격이 딱 좋다. ACL 2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려 K리그 개막(2월29일)을 맞이하는 것도 여러모로 좋다”고 이전 스케줄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1경기가 빠지면, 1차전 뒤 K리그 개막까지 근 20일 가까이 쉬어야한다.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도 좋을 것 없다. 무엇보다 일정이 4~5월로 밀리게 되면 그때 스케줄이 빡빡하게 변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프로연맹 측은 “K리그1 1라운드(4월30일~5월3일)와 18라운드(6월23일~24일/16강 일정과 겹침)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女농구, 12년만에 올림픽 도전 시작... “박지수 믿는다”

오늘 스페인전·8일 영국전·9일 중국전

1승만으로 본선행 가능... “안전하게 2승 할 것”

한국 여자농구가 12년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농구 여자 대표팀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인천공항을 통해 올림픽 최종예선이 열리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출국, 현지 적응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최종예선에서 스페인, 영국, 중국과 한 조에 편성돼 경쟁한다. 이번 최종예선에서는 각조 3위까지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 1승만으로도 충분히 본선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조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한국보다 전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국제농구연맹(FIBA) 랭킹만 봐도 19위인 한국이 가장 낮다. 스페인은 3위, 중국은 8위로 한국과 격차가 꽤 크다. 영국이 그나마 18위로 해볼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첫 경기는 6일 스페인전이다. 이어 8일 영국전, 9일 중국전을 치른다. 두 번째 경기인 영국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문규 감독은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과 승패를 가려야 한다”며 “1승만 해서 통과하기보다 2승을 해서 안전하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약제도 있다. 당초 최종예선은 중국 광둥성 포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의 여파로 개최지

###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명단

- △가드 = 박혜진(우리은행) 심성영(KB) 고아라(하나은행)
- △포워드 = 강아정(KB) 구슬(BNK) 김단비(신한은행) 강이슬(하나은행) 김한별(삼성생명) 김정은(우리은행) 김민정(KB)
- △센터 = 배혜윤(삼성생명) 박지수(KB)

를 변경했다. 한국으로선 대회 장소가 떨어지면서 이동 시간, 시차 적응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베테랑 김정은(우리은행)의 몸 상태도 변수다. 김정은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영국전, 중국전에 맞춰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뛰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문규 감독은 “15~20분 뛸 수 있을 정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다. 그사이 세대교체가 진행됐고, 12년 전 베이징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는 현재 대표팀 내 김정은이 유일하다.

김정은은 “이번이 내 농구 인생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전권을 따내고 싶다”며 “많은 국제대회에 나섰지만 올림픽은 신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박지수.

세계 그 자체다. 다른 선수들도 더욱 간절하게 준비 중”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지수(KB)라는 믿을 구석도 있다. 박지수는 지난 시즌 여자프로농구(WKBL)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MVP를 차지한 명실공히 최고의 선수다. WKBL 시즌을 마친 뒤로는 2년째 미국여자프로농구(WNBA)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올 시즌 역시 박지수는 평균 14.0득점(8위) 10.8리바운드(3위) 4.0어시스트(5위)로 맹활약 중이다. 박지수가 골밑에서 버텨주고 김정은, 박혜진(우리은행), 김한별(삼성생명), 강이슬(하나은행) 등이 외곽 지원을 해준다면 영국, 중국과는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 무엇보다 올림픽 무대를 밟겠다는 선수들의 간절함이 가장 큰 무기다.

## 고진영, LPGA 태국·싱가포르 대회 불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여파로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하이트진로)과 2위 박성현(27·솔레이)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참가를 취소했다.

고진영은 오는 20일부터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혼다 타이랜드 LPGA 출전을 포기했다. 아울러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 대회까지 불참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가 중국을 넘어 태국에도 확산되는 등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제 부상으로 재활에 매진했던 박성현도 시즌 첫 출전 예정이었던 싱가포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나서지 않는다.